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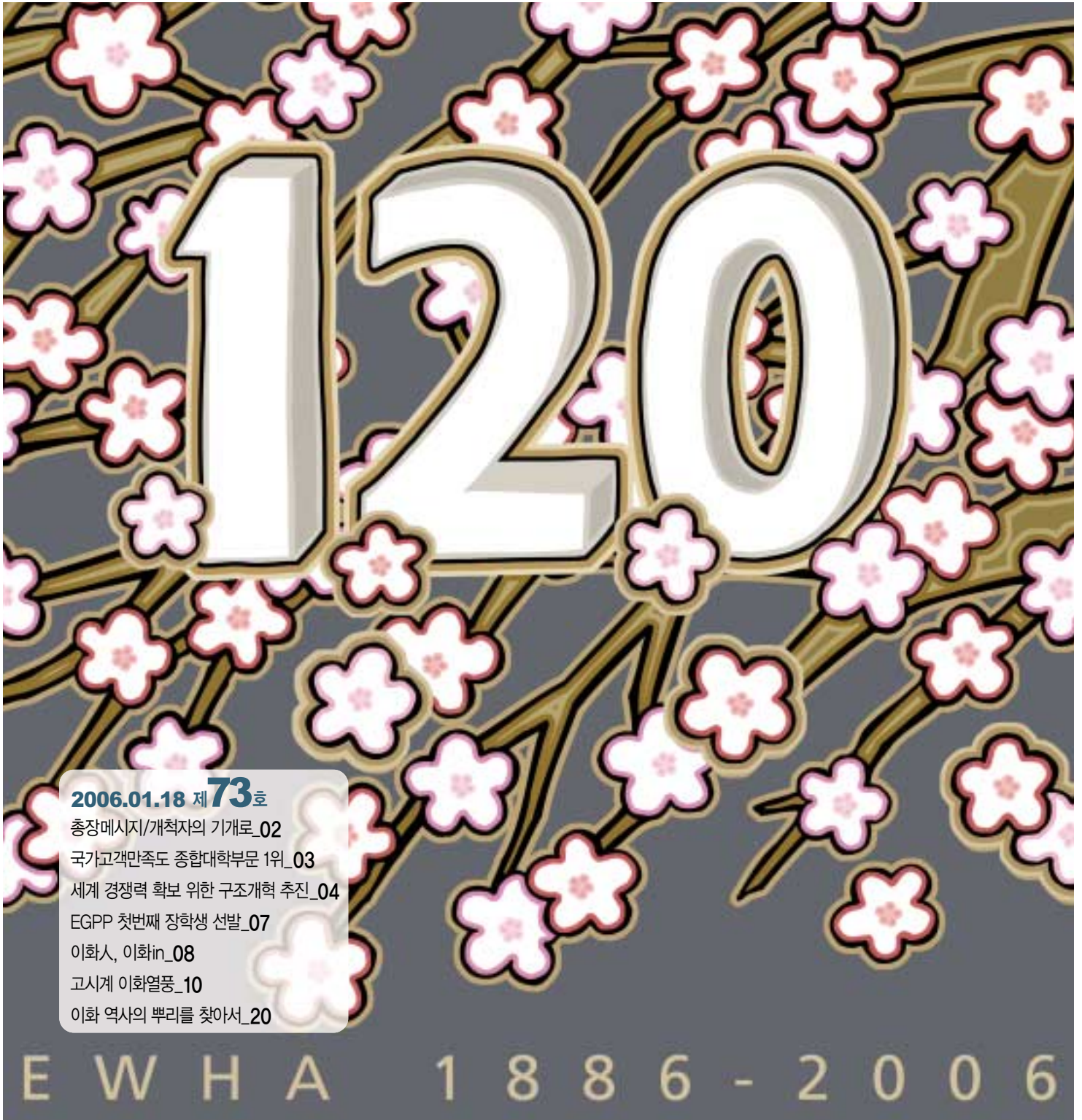


발행인·신인령 | 편집인·박통희
편집·홍보과 | 발행·이화여자대학교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전화·3277-2114, 3277-2047~9
팩스·364-8011 | www.ewha.ac.kr
웹진 이화소식·news.ewha.ac.kr

E W H A N E W S

이화소식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 골로새서 3장 15절 -



2006.01.18 제 **73**호

총장메시지/개척자의 기개로_02

국가고객만족도 종합대학부문 1위_03

세계 경쟁력 확보 위한 구조개혁 추진_04

EGPP 첫번째 장학생 선발_07

이화인, 이화in_08

고시계 이화열풍_10

이화 역사의 뿌리를 찾아서_20

E W H A 1 8 8 6 - 2 0 0 6



■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며

개척자의 기개로,
또 한번의 도약을 향해...

사랑하는 이화인 여러분, 존경하는 교직원과 동문 여러분, 이화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화의 친구' 여러분! 희망찬 병술년을 맞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에도 이화는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특성화 사업이 내실화를 다지고 있고, 전문대학원 체제가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과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의 도입에 이어 법학전문대학원과 경영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이화발전계획을 총체적으로 점검, 구조개혁 등 역점과제 13가지를 선정하여 이화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전교적인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꿈의 이화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화·삼성 캠퍼스센터(ESCC)의 공사가 지난해 여름부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10월에는 이화·신세계관이 완공되어 여성경영인 양성에 비약적인 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화 교육의 수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기쁜 성과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2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종합평가에서는 평가대상 40개교 중 1위를 차지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함께 진행된 학문분야 평가에서도 신문방송 및 광고홍보분야에서 전국 1위, 생물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전국 2위(대학원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연말에 발표된 한국생산성본부의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종합대학 부문 1위를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세계 여성에게 환원하는 이화의 창립이념

올 한해는 이화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스크랜튼이라는 미국인 선교사가 머나먼 이국땅 조선에 와서 근대 여성교육을 시작한 지 꼭 12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의 학생에서 시작된 그 작은 씨앗이 세계 최대의 여성교육기관이라는 거목으로 성장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이화 창립의 이념을 되살리고 120년간 축적해 온 우수한 교육역량을 세계 여성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이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EGPP)을 시작했습니다. 제3세계 및 개발도상국의 여성인재들을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이화에서 교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의 첫 번째 입학생 25명이 올 봄 학기에 입학할 앞두고 있습니다.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중국, 케냐, 캄보디아 등 15개국에서 선발된 이들이 세계 여성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화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화학당 한옥교사의 복원, 국제 기숙사인 글로벌 타워 건립 등 창립 12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과 학술 문화 행사들이 올 한 해 동안 펼쳐질 예정입니다.

21세기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이 우리의 엄숙한 사명

한편 대학교육을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뼈를 깎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세계 우수대학과 마찬가지로 이화 역시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구체적인 구조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전문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부대학 신설, 예술의 경계를 넘어서는 포스트 디지털 시대를 맞아 문화 예술분야의 새로운 리더를 키우기 위한 예술대학 신설, 건강과학 분야의 블루 오션을 개척하기 위한 건강과학대학 신설이 우리 대학 구조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00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이 같은 구조개혁의 큰 틀 속에서 해당 대학과 전공(학과)이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재 대학본부와 대학별 설립준비위원회가 체계적이고 세밀한 실행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 체제를 재정비하는 한편, 융합적 교육기반을 토대로 한 다양한 연계전공의 개발 등 창의적인 교육 콘텐츠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모든 구조개혁의 목표는 단 한 가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기관을 향한 이화의 도약입니다. 이는 120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숙한 사명입니다. 한국의 여성인재 육성에 앞장서온 이화가 구한말의 어둠을 헤쳐 온 개척자의 기개를 되살려 또 한 번의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과 정성을 모아야겠습니다. 이화인들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6년 1월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신인림**

■ 본교, 3년 연속 수직 상승세 기록

2005 국가고객만족도(NCSI)조사 종합대학 부문 1위



본교가 한국생산성본부(미시간대학, 조선일보 공동실시)가 주관하는 2005 국가고객만족도조사(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에서 교육서비스업 종합대학 부문 1위를 차지했다. 2002년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에 오른 뒤 2003년 3위, 2004년 2위에 이어 3년 만에 다시 최고의 자리를 되찾은 것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국내 주요 11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업 부문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본교는 74점을 기록, 4년제 대학 중 최고의

만족지수를 나타냈다. 2위는 고려대(72점), 3위는 성균관대(71점)가 각각 차지했다.

박통희 기획처장은 “전생애적 경력관리시스템, 장애학생 교육지원, 가계곤란 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등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한 결과”라면서 “무엇보다 이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EGPP)와 같이 이화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국제화 전략과 다각적이고도 혁신적인 학교의 변화 노력에 높은 점수를 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본교의 고객만족도는 2003년 61점, 2004년 69점(13.1% 상승), 2005년 74점(7.2% 상승)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학생의 기대에 부합하는 교육서비스 품질 수준이 해마다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생산성본부의 우상진 컨설턴트는 “최근 대학마다 고객만족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화여대의 경우엔 특히 우수교원 충원, 연구·교육시설 확충 노력으로 상승폭이 더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신인령 총장은 지난해 12월 13일 리즈칼튼 호텔에서 열린 NCSI 시상식에서 종합대학 부문 1위 인증서(패)를 받았다(사진). <효>

국가고객만족도 어떻게 조사하나?

NCSI는 국내외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해 고객이 직접 평가한 만족도를 수치로 계량화한 것으로 국가, 산업, 기업의 품질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 산업자원부가 후원하고 한국생산성본부와 미국 미시간대가 공동으로 해마다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서비스업 종합대학 부문 만족도 조사는 매년 10~11월, 서울소재 11개 대학(본교, 고려

대,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에서 각각 선발한 재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법·인문·사법계열, 경영학을 포함한 사회과학계열, 자연과학·생명과학계열, 공과계열, 의학·약학·간호학계열, 예·체능 및 생활환경계열 등 6개 계열로 나누어 학과, 학년, 성별을 고려하여 30명씩 설문조사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며 휴학생 및 석·박사과정은 제외된다. 이 과

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이루어져 해당 학교는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된다.

교수진(강사), 교과과정, 연구기반시설(실험실습/기자재/컴퓨터/도서관 등), 학사관리, 행정서비스, 학생편의시설, 장학 및 복지제도, 취업정보실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인지품질수준, 인지가치수준, 고객충성도, 고객불평율 등을 측정모델로 사용하고 있다.



세계 경쟁력 확보 위한 구조개혁 추진

2007학년도부터 학부대학, 예술대학, 건강과학대학 신설

본교가 2007학년도부터 학부대학, 예술대학, 건강과학대학을 새롭게 신설하는 구조개혁을 시행한다. 본교는 지난해 초 이화발전정책의 역점과제 중 하나로 구조개혁을 선정하고 교무회의를 통해 정원 10% 감축 및 3개 분야의 구조개혁안을 확정, 이의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본교는 지난해 6월, 이같은 구조개혁안을 바탕으로 2005학년도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난해 10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고려대, 경희대, 연세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 7개 대학과 함께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신인령 총장은 “지금은 이화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대 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대결단의 시기이며,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이화가 대학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21세기 선도 대학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했다.

구조개혁안이 확정됨에 따라 본교는 2007학년도부터 ▲교양교육 및 기초학문교육을 강화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학부대학을 신설하며 ▲문화예술분야의 융합적 교육 및 창작 기반 구축을 통한 예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음대, 조형예술대, 체육과학대의 무용과, 생활환경대의 의류직물학 전공을 중심으로 한 예술대학을 설치 운영한다.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 생활방식의 선진화 등으로 새로운 사회적 건강, 보건 복지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간호대, 생활환경대 식품영양학 전공, 사범대 보건교육과, 체육과학대 체육학과 등을 중심으로 한 건강과학대학을 설립한다.

본교는 그간 해당 단과대학 관계자 및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안을 논의해 왔으며, 시행안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단과대학별 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해 해당 대학과 전공(학과)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본교 구조개혁의 실무를 맡고 있는 박통희 기획처장은 “이번 구조개혁은 단과대학을 유사 학문 분야들로 재편함으로써 상호간 협력을 유도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

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화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비교 우위의 영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묶어 이화만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일 것인가에 역점을 두었으며, 앞으로 교육 체제의 정비와 융합적 교육기반을 토대로 한 다양한 연계전공 개발 등 창의적 교육 콘텐츠 확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교는 이같은 구조개혁안이 2007학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시적인 경과조치로서 ▲구조개혁분야의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원칙적으로 입학 당시의 소속을 유지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소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본교의 최근 10년간 구조개혁 실적

- 1996 법정대학 폐지,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법과대학, 상경대학 신설
학부제 도입
- 1998 사범대학 교육심리학과가 사회과학대학 심리학전공으로 소속 변경
- 1999 상경대학 폐지, 경영대학 신설(경제학전공 사회과학대학으로 소속 변경)
사범대학 외국어교육과 불어교육전공이 인문과학대학 불어불문학전공으로 통합
대학원 분자생명과학부 신설
- 2001 국제학부 신설
- 2002 가정과학대학을 생활환경대학으로 변경
대학원 디지털미디어학부 신설
- 2003 대학원 나노과학부 신설
- 2004 체육학전공과 사회체육학전공을 체육학과로 통합
정보과학대학원 폐지
- 2005 2007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른 의과대학 폐지
약학전공과 제약학전공을 약학과로 통합
- 2006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학전공 폐지
생명과학전공과 분자생명과학전공을 생명과학전공으로 통합
컴퓨터학전공과 정보통신학전공을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으로 통합
교회음악전공 폐지

이화인만의 열정과 패기 가득 폭발적 호응 얻은 ‘이화 프론티어’ 장학금



학생처(처장 최경희 교수)가 본교 창립 120주년을 기념, 한국의 최초를 열어온 이화의 개척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이화 프론티어 장학금’ (학생활동 지원 특별 장학금)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21일~12월 5일,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화인의 힘과 꿈’이라는 주제의 활동(연구)계획서를 공모, 이화인의 자긍심

을 고취시키고 개척정신과 도전의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120명(팀)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한 것.

국내 및 해외 탐방, 국내 및 해외 봉사, 공연 및 전시 기획, 학술논문 등 4가지 지원분야로 구성된 이 장학금공모는 951명의 학생이 지원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김영심 학생과장은 “이화인만의 열정과 패기를 전공 혹은 관심분야를 통해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다소 추상적인 주제를 창의적인 발상으로 풀어낸, 매우 알찬 아이디어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중앙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프론티어 장학생은 개인 22명과 98팀(482명)으로 총 504명이며,

이들에게는 약 6억 8000만원의 장학금이 차등 지급됐다.

참가자들은 겨울방학 중 활동(연구)을 마치고 올 1학기초, 보고서 제출 및 공연이나 전시 등을 통해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누비며 프론티어 정신을 실천하고 온 이화인들의 체험담이 기대되고 있다. <민>

학교 주변 토지 매입으로 본교 교육환경 크게 개선

본교가 학생들의 교육 공간 확보를 위해 학교 주변의 토지를 꾸준히 매입해오면서 학생정원 대비 교지 기준면적 확보율이 늘어나 교육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무처(처장 양혜순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를 전후해 본교는 총 1260여 평의 교육용 토지를 확보했으며, 이 중에는 지난 10여년에 걸쳐 대현재개발조합과 소유권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정문 주변의 토지 9필지(대현동 33-65 외)도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글로벌타워 신축공사와 관련해 매입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던 글로벌타워 주변의 사유지와 국·공유지 등 7필지, ESCC 엔트리 플라자 신축을 위한 (구)이화교 주변의 국·공유지 4필지, 기숙사 뒤편 북아현동 부지 4필지 등 총 24필지를 매입하거나 완료할 예정에 있다.

그간 교지매입을 위해 104억 원 상당의 교비예산이 지출되었으며 올 상반기까지 매입 예정하고 있는 국·공유지 매매대금으로 5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본교는 앞으로도 교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교지 매입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물관, 2005 올해의 예술상 수상 문화 선도하는 대학 박물관의 모범 사례

본교 박물관이 지난해 선보인 창립 70주년 특별기획전 ‘시간을 넘어선 울림 : 전통과 현대’ (2005. 5.31~7.30/총괄기획 : 윤난지 前 관장)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여하는 2005 올해의 예술상을 받았다.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된 이 상은 문학, 미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총 7개 분야로 구성, 각 분야마다 최우수상 1편, 올해의 예술상 4편을 선정한다.

지난해 출품된 총 2000여 작품 중 32개 작품이 선정된 이번 시상에서 박물관의 기획전은 미술 분야에서 올해의 예술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대학 박물관 가운데 최초이자 유일하게 수상함으로써 본교 박물관은 그 우수한 기획력과 뛰어난 전시감각을 대내외적으로 공인받게 됨은 물론, 문화를 선도하는 대학 박물관의 범례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상식은 지난해 12월 19일 아르고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렸으며, 본교 박물관을 대표해 오진경 관장이 기념 트로피와 상금 3000만 원을 받았다. 오 관장은 지난해 10월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교육담당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박물관 70주년 특별기획전에 전시된 이 불의 ‘사이보그’와 백자도자기 파편

제5회 김옥길 기념강좌 ‘미래과학기술의 새 틀과 인재육성’ “黃의 법칙, 노벨상과 만나다”

이화의 큰 스승 김옥길 선생을 기리는 제5회 김옥길 기념강좌가 ‘미래과학기술의 새 틀과 인재육성’을 주제로 지난해 11월 14일(오후 2시) 김영익홀에서 열렸다.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WISE거점센터, 기초과학연구소가 공동주관한 이번 강좌에는 황창규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사장과 로버트 러플린 카이스트 총장이 연사로 초대됐다.

반도체산업의 현재와 미래(Semiconductor Inspiration: the Mission Ahead)를 테마로 강단에 오른 황사장은 “요새를 짓는 사람은 패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디지털 노마디즘으로 미래의 인재상과 기술을 설명했다. ‘반도체 집적도는 1년에 2배씩 증가한다’는 ‘黃의 법칙’으로 유명한 그는 “자고나면 신제품이 나올 정도로 급변하는 시대에는 개인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엮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면서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여 창조적으로 접목하는 디지털 유목민이 되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우주(A Different Universe)’를 주제로 강연한 러플린 총장은 “원자, 분자, DNA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물리, 생명, 화학, 나노, IT 등 여러 기술이 수렴되고 통합되는 미래 과학의 시대



러플린 카이스트 총장(왼쪽)과 황창규 사장이 강연하고 있다.

에는 세계를 큰 틀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부분의 합이 아닌 전체가 나타내는 새로운 특성, 즉 창발성을 이해하는 새로운 과학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효>

한국표준협회와 6시그마 교육·공동인증 협약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 육성

본교가 한국표준협회(회장 이계형)와 ‘6시그마’ 교육 및 공동 인증 약정서 조인식(1월 5일 오전 10시·본관 소회의실·사진)을 갖고 한국표준협회의 6시그마 정규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과학기술연계전공과정에 3학점의 ‘6시그마경영’ 과목을 개설, 40시간 이상을 교육받은 후 인증자격시험을 통과한 재학생에 한해서는 EWU-KSA 공동 GB인증서도 발급할 예정이다.

‘6시그마경영’은 불량을 통계적으로 측정, 분석하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6시그마’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전사적인 품질개선활동을 말한다. 최근 들어 R&D, 마케팅, 관리 등 경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6시그마’ 교육을 도입함으로써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표준협회는 실무 위주의 전문교육을 제공함으로써 6시그마의 저변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인령 총장은 “이번 약정으로 기업체가 원하는 현장 중심적이고 창의적 사고를 갖춘 전문인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성공적인 산연학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촌밸리, 신촌산학협력포럼 개최



본교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등 신촌 지역 4개 대학의 산학협력공동체인 신촌밸리의 제1차 신촌산학협력포럼이 지난해 12월 8일(오후 1시30분) 이화 신세관 대강의실에서 열렸다.

4개 대학 총장과 반장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촌산학협력포럼에서는 ▲산학협력에 대한 산업체, 정부기관 및 대학의 이해와 접근방법(홍국선 교육부총리정책보좌관) ▲기업체의 입장에서 바라본 산학협력의 필요성(박종세 (주)랩프린터 대표이사) ▲TLO의 지적재산권 관리 전략 개요(신승남 본교 법학과 교수) 등에 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신촌밸리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한국특허정보원, 한국기술거래소,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잇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짧은 기간 안에 괄목할만한 기술이전 성과를 내고 있다.

| 2006학년도 수시2학기 및 정시 모집 |

다양한 전형으로 우수 신입생 선발

입학처(처장 박동숙 교수)는 지난해 12월 21일, 2006년도 수시2학기 모집 합격자를 발표한데 이어, 12월 28일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수시 2학기 모집-총 7개 전형에 1718 명 선발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고교추천 특별전형, 실업계 고교 특별전형, 성적 우수자 특별전형, 미래과학자 특별전형, 외국어 우수자 특별전형, 조형예술 우수자 특별전형의 수시2학기-I 모집과 고교수학능력 우수자 특별전형의 수시2학기-II 모집이 높은 경쟁속에 치러졌으며 그 결과 총 1718명이 선발되었다.

수시2학기-I의 6개 전형은 총 918명 모집에 7687명이 지원, 8.37:1의 경쟁률을 보였고 수능시험 직후 실시된 수시2학기-II 고교수학능력 우수자 특별전형은 800명 모집에 1만440명이 지원, 13.05: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정시모집-일반전형 2단계로 실시

200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본교는 총 1706명 모집에 7195명이 지원, 4.2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시모집은 본교가 '가'군으로 속한 일반전형과 사회기여자 및 소년가장, 농·어촌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등 3개의 특별전형으로 실시되며 1월 20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2단계에 걸쳐 신입생을 뽑는 일반전형의 경우, 1단계는 대학수학

능력시험만으로 정시모집 인원의 50%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하는데 자연과학대학 및 공과대학은 정시모집 인원의 20%를 수리 및 과학탐구영역 합산 성적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학생부와 수능이 각각 48~50%, 논술(인문계열 모집단위)이 3~4% 반영되며 사범대학의 경우 이에 더하여 면접 1%로 나머지 인원을 선발한다.

예·체능 계열 역시 단계별 전형을 실시한다. 음악대학은 실기능력이 우수한 학생 30~50%를, 조형예술대학은 수능성적 우수자 20%와 실기 우수자 20%를 우선 선발한다. 나머지 예·체능계열 학생들은 실기, 수능, 학생부를 모두 반영하여 선발한다.

2단계 전형의 논술고사는 1월 3일, 사범대 면접고사는 1월 4일, 예·체능 계열 실기고사는 1월 3일부터 11일까지 모집단위별로 이루어졌다.

사회기여자 및 소년가장, 농·어촌학생, 특수교육대상자의 3개의 특별전형은 전형별 지원 자격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며 전형별, 모집단위별로 수능, 학생부, 면접 및 실기(예·체능계열)를 통해 정원 내 20명 이내, 정원 외 80명 이내를 선발한다.

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EGPP) 첫번째 장학생 25명 선발

창립 120주년 기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EGPP)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총 25명이 선발되었다.

EGPP는 제3세계 및 개발도상국 여성인재들을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 21세기 글로벌 리더로 키워내는 이화의 세계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이화의 120년 교육 역량을

세계 여성들에게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큰 관심을 모았었다.

EGPP 실무를 맡은 국제교육원(원장 이재경 교수)에 따르면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모잠비크, 케냐 등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15개국에서 박사 4명, 석사 8명, 학부 13명(학부편입 1명 포함) 등 25명이 전형 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30일 최종 선발되었으며 이들은 올 1학기부터 등록금, 한국어 연수비, 생활비 등을 지원받아 본교에서 수학하게 된다.

EGPP의 첫 전형에는 학부 및 석·박사 과정을 합해 총 132명이 지원했으며, 지금까지도 입학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매년 30명 내외의 장학생을 선발하며 올 하반기에는 석·박사 과정 장학생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입학 홍보 비디오 '100인의 추억'

입학처가 입학 홍보 비디오 '100인의 추억'을 제작했다. 2003년 'You've got mail', 2004년 'Love Letter'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인 이 영상물은 언론홍보영상학부 주철환 교수가 이끄는 언론홍보영상학부 재학생팀(아래 사진)이 6개월여의 작업 끝에 완성했다.

타임머신이라는 판타지와 광고 패러디 등 참신함이 돋보이는 '100인의 추억'은 캠퍼스 안에 침입한 두명의 스파이(?)가 이화학당 학생이었던 유관순 열사와 '학교중'을 창작한 김메리 선생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선배들을 만나며 이화의 가르침과 추억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7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한 입학설명회, 간담회, 고교방문 등 본교 입학 홍보용으로 상영될 예정이다.





이화로 온 세계적 동물행동학자 최재천 교수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만나는 ‘큰 생물학’ 하고 싶다

‘대중의 과학화’에 힘쓴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 참여형’ 과학자.

최근 도정일 교수와 함께 내놓은 화제작 ‘대담 :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만나다’를 비롯해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여성시대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 등 많은 저서로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진 작가이기도 하다.

최 교수는 본교를 ‘인생 이모작’의 첫발로 선택한 것에 대해 “원래 이화여대는 동물분류학의 거장인 김훈수, 노본조 교수 등이 몸담아있던 곳으로 그간 많은 생물학자를 키워냈다”면서 “이화의 오랜 전통을 살려 이 곳을 계통분류학과 생태학의 새로운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본교의 인문학적 전통 및 강점 또한 그가 꿈은 이화의 매력중의 하나.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섭(統

攝: ‘함께 넘나들’이라는 뜻의 라틴어 consiliere에서 온 단어로 ‘설명의 공통기반을 만들기 위해 분야를 가로지르는 사실들과 사실에 기반한 이론을 연결함으로써 지식을 ‘통합하는 것’을 뜻함)은 우리 시대의 화두”라고 말하는 최 교수는 앞으로 이화의 인문학 분야 교수들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과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대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을 거쳐 하버드 대학에서 생물학 석사(1986년) 및 박사학위(1990년)를 취득하고 94년부터 서울대 교수를 지냈다.

제1회 대한민국 과학문화상(2000년), 제8회 한일 국제환경상(2002년), 제16회 올해의 여성운동상(2004년) 등 수상경력도 화려하다. 최근 한국생태학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최 교수는 2007년부터는 2년 임기의 회장으로 학회를 이끌게 된다. <덕>

“개인적으로 추구해온 ‘큰 생물학’(Macro-Biology)에 대한 이화여대의 오랜 전통과 자원 의지가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를 꿈꾸는 여학생들을 이화에서 열정을 다해 키워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동물행동학자 최재천(崔在天) 교수가 그간 몸담아온 서울대를 떠나 2006학년도 봄학기부터 본교 석좌교수로 부임한다.

그는 자연의 생태계에 숨어있는 삶의 섭리를 인간 사회와 비교하며 알기 쉽게 풀어낸 저술활동을 통해



<사진 왼쪽부터 칼리파, 김정연, 최병일 교수, 송지은 씨>

“일상의 게임처럼 늘 토론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지요. 짧은 시간 안에 하나의 주제를 놓고 자신의 논리를 설득하면서,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짚어내야 하는 긴장감까지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학부 재학생 김정연(3년), 송지은(2년), 그리고 릴 칼리파(2년)씨. 우리나라 영어토론의 최강자로 떠오른 본교 영어토론회 EDiS(Ewha Debating Society)의 삼총사들이다.

지난해 11월, 제2회 동북아시아 대학생 영어토론 대회 결승전에서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생들을 당당히 물리치고 우승의 영예를 차지한 이들은 “영어 토론에 익숙해 지는 것은 후에 국제무대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2003년에 만들어진 본교 영어토론회는 모든 이화인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현재 22명의 회원이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크고 작은 이슈에 대해 꼼꼼히 공부해 가며 매주 토론회를 갖고 있다.

“회원들간의 유별난 자매애가 EDiS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하는 릴 칼리파 씨는 한국 주재 수단대사의 딸로 언젠가 수단의 외무 장관이 되겠다는 야무진 꿈을 갖고 있다.

EDiS 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연씨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아버지를 따라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성장

했다. 평소 표현력이 부족해 영어토론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다”고, 다국적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인생의 최종 목표.

로스쿨에 진학해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이 목표인 송지은씨 역시 스웨덴, 방글라데시, 필리핀과 홍콩 등지에서 생활했던 코스모폴리탄이다.

EDiS를 적극 후원해온 국제학부 최병일 교수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국제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어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며 많은 이화인들이 영어토론회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은>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수상

이공주 교수(분자생명과학)

지난해 12월 21일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이 수여하는 제5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의 진흥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8월 개최된 제13차 세계여성과학기술인대회(ICWES 13)의 조직위원장을 맡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교수는 또한 지난해 12월 6일의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정기총회에서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올 1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과학은 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킹과 정보교류가 필요한 만큼 여성과학자들의 리더십 키우기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계3대 인명사전에 동시등재

홍순태 교수(과학교육)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06년 판), 영국 IBC(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의 '21세기 저명 지식인 2000인' (2005년 판), 미국 ABI(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의 '21세기 위대한 지성인' (2005년 판)에 동시 등재됐다.

홍 교수는 입자물리학 분야의 전문가로, 1993년 시그마카사이 과학학회 명예 과학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초대칭 이론, 블랙홀 이론 등에 대한 연구로 유명 국제 학술지에 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해 왔다.



이혜숙 교수(수학)

지난해 11월 3일,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WISE 거점센터를 이끌며 차세대 여성과학자 육성에 앞장서 온 그녀는 앞으로 한민족 여성 과학자 네트워크 구축, 여성 지도자를 위한 과학기술 연구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태제 교수(교육)

2년 임기의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정원 교수(물리)

과학기술부가 수여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의 06년 1월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정 파장의 빛을 모두 반사하는 물질인 '3차원 광자 결정'으로 빛의 투과를 조절하는 기술을 규명함으로써 저가 액정표시장치(LCD) 개발에 길을 트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운섭 교수(의과대학장)

지난해 11월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지수 교수(의학)

지난해 11월 25일, 대한류마티스학회 해외학술상을 수상했다. 또한 미국에서 발행되는 국제학술지 Arthritis & Rheumatism에 논문 The V α -J λ repertoire of patients with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manifests characteristics of the natural antibody repertoire가 게재되었다.

하중식 교수(의학)

지난해 10월, 제57차 대한생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박석순 교수(환경)

지난해 12월, 42개의 대표 환경재난을 중심으로 각종 환경재난을 소개한 저서 '살생의 부메랑'이 대한출판문화협회 '2005 올해의 청소년도서'로 선정되었다. 또한 지난해 10월 24일,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 자연환경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한 공로로 서울특별시 감사패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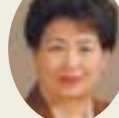
김승철, 주웅 교수(의학)



지난해 11월 25일에 열린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에서 논문상을 수상했다. 김승철 교수는 '자궁내막암에서 현미부수체 및 hMLH1, hMSH2, BAX 발현'이란 논문을 발표, 올해 최고의 논문에 주어지는 학술상을 수상했다. 주웅 교수는 '인터루킨4 수용체 다형성과 난소암의 연관성'이란 주제로 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명예교수 동정>

성정순 명예교수



지난해 6월 17일, 체육대학에 장학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92년 퇴직 당시 성정순 장학금으로 기부한 1000만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체육대학 1회 졸업생으로서 본교 체대 교수로 재직 했으며, 이후 총동창회장을 거쳐 현재 총동창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태련 명예교수



지난해 해럴드경제로부터 '2005 대한민국 혁신경영인 대상'을 받았다. 세세대 경영회를 운영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센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혜원 명예교수



형가리 작곡가 홈멜의 '피아노 소나타' 전곡 녹음을 10년 만에 완성했다. 장 명예교수는 지난 80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인 음반사 낙소스와 계약한 이후 25년간 20여개의 음반을 발표했다.



이배용 교수(사학)

지난해 12월 3일 조선시대사학회 정기총회에서 여성 최초로 2년 임기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96년에 발족된 조선시대사학회 조선시대사의 제 분야에 걸친 연구로 한국사의 체계를 확립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학문연구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박승희 교수(특수교육)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조정위원회의 2년 임기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조정위원회의 하나인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는 장애 분야의 차별 사건 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황규광 교수(의학)

지난해 12월 4일,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 총회에서 2년 임기의 차기 이사로 선출되었다.

주요 국가고시, 이화 열풍 분다

2005년도 사법고시, 변리사시험 등에 대거 합격

최근 고시계에 불고 있는 이화 열풍이 2005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22일 발표된 제47회 사법시험에는 이화인 52명이 최종합격했다. 이는 본고 역사상 최다이며 지난 수년간의 본고 합격자 증가 추세를 훨씬 앞지른 것이다. 이번 합격자 중에는 재학생이 13명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법학 비전공자도 10명에 달했다. 이들을 포함, 본고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는 총 260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날, 제49회 행정고등고시에도 이화인 11명이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직종별로는 일반행정직 7명, 재경직 2명, 교육행정직 1명, 기술직 1명이며 재학생도 3명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02~04년에는 전국 대학 행정학과 중 본고 행정학과가 총 29명(학교 전체 53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지금까지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화인은 이번 합격자를 포함, 총 113명으로 집계됐다.

여풍이 두드러졌던

지난해 제39회 외무고등고시에서도 이주원 동문(비서 01년 졸)이 6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했다. 이 동문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가 중 우리나라가 11위의 국제 교역 수준에 도달해 있는 만큼 앞으로 통상 분쟁을 조정하는 통상법을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본고는 1988년 오영주 외무관(정치외교, 86년 졸)이 첫발을 내딛은 이래 2000년부터 매년 빠짐없이 외무고시 합격자를 배출해오고 있다.

2005년 전문직 시험에서도 이화인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제42회 변리사시험에서는 10명의 합격자(재학생 2명 포함)가 나왔다. 이는 여성합격자 전체(61명)의 16%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2004년에도 수석 합격자 김미정 동문(화학·00년 졸)을 비롯, 7명을 배출한 바 있는 본고는 지난해부터 변리사 고시반을 신설, 이화인들의 변리사 시험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고 출신 변리사와 정부기관 심사관들이 주축이 된 이화특허인회(회장 안소영)는 1월 6일(오후 7시)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대회의실에서 신규 합격자를 축하하는 신년 모임을 갖기도 했다.



9월 8일 발표된 제40회 공인회계사 시험에는 총 42명의 이화인이 최종 합격, 출신대학 중 전체 7위를 차지했으며 합격자 중 경영학 주전공생의 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합격자를 포함해 이화출신 회계사는 총 244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노동관계 전문가로 그 수요가 늘고 있는 공인노무사 분야에 진출한 이화인은 지난해 11월7일 제14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6명의 이화인이 최종 합격함으로써 총 31명이 되었다. 대표적인 전문직종인 언론사 공채에는 2005년 12월 현재 4명의 이화인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기자직 3명, PD직 1명이며 3명은 재학 중 합격했다. 아직 많은 언론사들이 공채를 치르는 중이어서 추후 더 많은 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

합격자 명단

<제47회 사법고시 합격자>

강경윤(법학 01년 졸) 고미라(법학 4년 재학) 김남영(법학 02년 졸) 김동선(법학 02년 졸) 김명희(정외 01년 졸) 김민지(법학 4년 재학) 김보람(영문 00년 졸) 김새움(법학 01년 졸) 김수민(법학 04년 졸) 김유정(법학 00년 졸) 김유진(법학 04년 졸) 김자선(법학 02년 졸) 김지숙(법학 4년 재학) 김진희(법학 4년 재학) 김혜영(법학 01년 졸) 김효정(통계 4년 재학) 류영지(법학 4년 재학) 마상미(법학 03년 졸) 박기쁨(사회생활 4년 재학) 박선영(수학 02년 졸) 박소진(법학 04년 졸) 박순영(신방 97년 졸) 박현진(법학 4년 재학) 배예선(법학 4년 재학) 소리나(법학 04년 졸) 손정은(법학 03년 졸) 신하영(법학 04년 졸) 안지훈(법학 02년 졸) 연선주(신방 94년 졸) 유성희(행정 98년 졸) 유승민(중문 97년 졸) 윤민숙(법 4년 재학) 이소민(법학 03년 졸) 이연경(법학 05년 졸) 이용숙(법학 05년 졸) 이정은(사학 99년 졸) 이지연(법학 98년 졸) 장민아(법학 96년 졸) 전수진(법학 4년 재학) 정영주(법학 97년 졸) 정은영(법학 05년 졸) 차경재(법학 4년 재학) 채연선(법학 01년 졸) 최근영(법학 03년 졸) 최수경(법학 4년 재학) 최은정(법학 04년 졸) 표현지(법학 02년 졸) 한정에(법학 03년 졸) 한정현(법학 03년 졸) 한진희(법학 03년 졸) 홍현미(법학 04년 졸) 황정란(법학 00년 졸)

<제39회 외무고등고시 합격자>

이주원(비서 01년 졸)

<제49회 행정고등고시 합격자>

행정직
●일반행정: 구효선(비서 99년 졸) 김동배(영문 4년 재학) 박송이(행정 4년 재학) 박은정(사회생활 02년 졸) 배인영(행정 03년 졸) 윤희재(행정 04년 졸) 황우정(행정 02년 졸)
재경 신보미(경제 4년 재학) 이유진(행정 04년 졸)
●교육행정: 민미홍(정외 04년 졸)

기술직

●전기: 김혜원(정보통신 4년 재학)

<제42회 변리사시험 합격자>

김지은(화학 94년 졸) 김지현(제약 02년 졸) 김혜리(건축 4년 재학) 신정아(물리 99년 졸) 윤상희(전자 99년 졸) 이동혜(건축 01년 졸) 이소정(식품 영양 99년 졸) 이혜미(컴퓨터 3년 재학) 정소진(제약 98년 졸) 정연주(통계 01년 졸)

<제40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강민경(독문 02년 졸) 권오현(경제 4년 재학) 권재희(중문 05년 졸) 김숙경(경영 05년 졸) 김연미(경영 00년 졸) 김연정(경영 4년 재학) 김연주(경제 98년 졸) 김은진(통계 4년 재학) 김정은(경제 4년 재학) 김하영(물리 03년 졸) 김현효(경제 04년 졸) 박소영(경영 05년 졸) 박정렬(경제 05년 졸) 변성현(통계 04년 졸) 서수정(경영 04년 졸) 신명아(경제 05년 졸) 신수민(경영 4년 재학) 신현주(문헌정보 01년 졸) 오미영(간호 00년 졸) 유은선(경영 03년 졸) 유진선(비서 4년 재학) 이서

진심리 05년 졸) 이선혜(경영 4년 재학) 이정민(경제 4년 재학) 이지영(비서 4년 재학) 이지은(경영 04년 졸) 이현정(통계 4년 재학) 임상미(경제 4년 재학) 임지현(경영 05년 졸) 전주희(의직 4년 재학) 정지원(경제 05년 졸) 채정련(경영 03년 졸) 최선영(경영 4년 재학) 최선희(불문 03년 졸) 최유빈(경영 3년 재학) 최현아(경제 4년 재학) 한정미(경영 04년 졸) 허유진(경영 05년 졸) 황경아(경영 4년 재학) 황성임(통계 01년 졸)

<제14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자>

박경옥(법학 83년 졸), 최윤선(사회사업 93년 졸), 한문형(식품영양 98년 졸), 정희진(경제 02년 졸), 박세은(법학 04년 졸), 안윤경(법학 01년 졸)

<주요 언론사 공채 합격자>

동아일보: <기자> 임우선(경영 4년 재학)
KBS: <TV·PD> 김미혜(연홍영 4년 재학)
<기자> 이하늬(교육 03년 졸)
중앙M&B: <기자> 이정화(연홍영 05년 졸)



(왼쪽부터) 의학과 조현아, 박지윤, 박지현, 조가은 씨



이미나씨



(왼쪽부터) 디지털미디어학부 홍태화, 김은성 씨



(왼쪽부터) 국제학부 조대은, 김연우, 김현정, 정지혜 씨

빛나는 수상 소식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 차지한 이화인들

2005년에는 미술, 디지털산업 등 각종 경연대회에서 이화인들의 반가운 수상 소식이 전해졌다.

이미나씨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통령상

한국화를 전공하는 이미나(미술학부 석사과정) 씨가 지난해 11월 25일 '제24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가을전시(구상·디자인·공예 부문)에서 채색 작품 '역사의 흐름'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역사의 흐름'은 고구려 무덤 벽화를 배경으로 긴 세월을 이어온 한국 여인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묘사해 심사위원들로부터 "침체되어 가는 한국화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이미나 씨는 전남도전 대상, 광주시전 대상, 제1회 소치미술대전 종합대상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의 공모전인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까지 수상하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디지털미디어학부팀 'Young Digitalist' 논문대상

지난해 11월 15일에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주관하는 'Digital2 컨퍼런스 Young Digitalist 논문공모' 디지털산업분야에서 대학원 디지털미디어학부팀(권희정, 김은선, 양희수, 홍태화 씨)의 논문이 대상을 차지했다. 'Young Digitalist'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디지털 시대를 이끌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고자 마련한 공모전으로 4개 분야 330여 편의 논문이 접수되었으며 본교 팀은 디지털산업분야에 '고연령층에게 친근한 휴대폰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주제로 한 논

문으로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들은 첨단 디지털기기들이 대분 고연령층을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이라는 점에 착안, 고연령층을 위한 휴대폰 UI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제학부, 의학과팀 'LG 글로벌 챌린저' 수상

이외에도 국제학부와 의학과 팀은 세계 최고 수준의 현장을 체험·연구할 수 있도록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LG 글로벌 챌린저'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차지했다. 국제학부 '빛쟁이'(김연우, 김현정, 정지혜, 조대은 씨)팀은 경제·경영 부문에서 'Let there be light! 조명을 통한 야간경관의 관광자원화'란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빛쟁이' 팀은 유럽 3개국 4개 도시(체코 프라하, 프랑스 리옹·파리, 영국 런던)를 탐방, 야간의 관광자원화의 사업성을 확인하고 서울시 야간 경관의 향상을 위해 최소의 투자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제안했다.

의학과 '기.찾.길'(기억을 찾는 길, 박지윤, 박지현, 조가은, 조현아 씨)팀은 자연과학부에서 '노령화 사회에서 치매연구와 치매노인의 복지에 대한 고찰'이란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기.찾.길' 팀은 영국, 스위스, 스웨덴의 치매 연구기관 및 요양시설을 방문해 치매 연구 및 복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재정의 효율적 활용사례, 치매시설과 지역사회의 통합사례 등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형 선진 'Role-Model'을 제시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을 나눕니다 가계곤란 청소년 78명에 총 2100만원 장학금 전달

학생처(처장 최경희 교수)는 지난해 12월 16일(금) 본관 소회의실에서 서대문구의 어려운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총 21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성금은 지난해 11월의 이화인건기대회 '2005 이화인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사랑으로 한걸음' 행사에 참가했던 교직원, 재학생과 동창, 초·중·고등학생들이 낸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부속중

·고등학교, 사회복지관, 부스르기사랑나눔회, 서대문구청 등을 통해 추천받은 가계곤란 학생 78명의 학비보조금으로 사용된다.

2001년부터 5년간 '이화인건기대회'를 통해 모인 후원금은 8900만원으로 지금까지 모두 총 253명의 가계곤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았다.



유아교육과 창립 90주년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길을 닦다

1915년 한국 최초로 유아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유아교육과가 창립 90주년을 맞아 지난해 12월 2일(금) 경영관홀에서 교수, 학생, 동창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기숙 교수(유아교육)는 "1914년 16명의 원아를 받아 이화유치원을 열고 이듬해인 1915년 유아교사 양성을 위해 이화유치원 사범과를 개설한 것이 우리 학과의 시초"라면서 "유아교육과는 본교 사범대학의 기초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지난 90년간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발전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순일 외 퇴임교수 5명과 반운경 동창에게 공로패를, 정주자 외 3명의 동창에게 감사패가 증정됐으며 유아교육과 90주년의 발자취를 담은 동영상과 '유아교육과 90년사'도 선보였다.

개교 50주년 맞은 부속 초교 초등교육센터 개관

사범대 부속초등학교(교장 조연순 교수)가 지난해 12월 22일(목)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학교건물 4층에 초등교육센터(사진)를 개관했다.



국내 초등학교교사는 최초로 문을 연 천문우주관, 50년 전 책상과 교구, 교과서 등으로 옛날 교실 풍경을 재현한 역사자료실, 학교 및 가정생활을 상담해주는 아동연구실, 컴퓨터로 영어공부를 하는 어학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화 속에 세계 있다



본교에서 수학중인 세계 교환학생들의 축제 한마당 2005 이화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 지난해 11월16일(수)~17일(목)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펼쳐졌다. 교환학교 박람회, 유학·교환학생 설명회, 'Mr. 이화 선발대회' 등이 이어진 이번 행사에는 하버드 대학, 와세다 대학 등 15개국 98개 대학이 참가해 모국과 모교 홍보에 열을 올렸다.

2005 'Mr. 이화'는 누구?

바로 이사람, 네덜란드의 니콜라스 딜링(그로닝겐 대학)이 'Mr. 이화 선발대회' 진의 영광을 안았다. 드럼으로 아리랑을 연주해 관중을 순식간에 매료시켜 버린 괴력의 소유자라고, 이날 'Mr. 이화 선발대회'에는 12명이 남학생들이 출전해 노래와 춤, 트럼펫 연주, 살사 댄스 등 화려한 개인기를 뽐냈다. <효>



태평양을 건너온 이화사랑 36년

이화 국제재단의 기금및 장학금 소식



쉐론 레이더 국제재단 회장(오른쪽)이 신인령 총장에게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본교 후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화 국제재단(회장 쉐론 레이더)이 지난해 11월, 미국 클리브랜드시에서 연례이사회를 열고 미국을 방문한 신인령 총장에게 ESCC 신축기금및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이화 국제재단은 국제연대를 통해 이화를 발전시키려는 김활란 전 총장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1970년 4월 뉴욕에서 창립되었으며 이후 35년간 이화를 끊임없이 지원해 왔다.

100주년기념도서관과 목동대학병원 건축, 대강당 보수에 협력했으며 각종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국제재단에는 개인이 설립한 80여 개의 장학기금과 북미주 24개동창지회에서 설립한 지회장학기금이 있는데 이를 통해 2005 회계연도(2004년 10월 1일~2005년 9월 30일)에 총 21만9875달러가 이화에 지원되었다.

또한 2005년 회계연도에 국제재단에는 9개의 기금이 신설되었으며 총 43만144달러의 금액이 모금되었다. 장학기금 및 기타 기금으로 26만8447달러가 쓰여져 모두 48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2005년 4월 24일 워싱턴D.C.지역에서 치러진 기금모금 디너에서는 ESCC 를 비롯한 여러 기금을 위해 3만3550달러가 모아졌다. 우편을 통해 모금된 메이데이펀드는 6370달러였다.

이화 국제재단 통해 장학금 전달한 동창 2인

이학혜 동창 (의학·60년졸)

테네시주 멤피스에 거주하는 이학혜 동창은 지난해 9월, 이화국제재단에 주식을 기부하여 이학혜 변종수 장학금을 설립했다. 10만 달러에 이르는 원금으로 만든 이 장학금은 2007학년도 초부터 본교 의과대학의 장학금으로 쓰일 계획이다. 이학혜 동창은 본교 병원과 뉴욕 자마이카 병원, 조지아주 에모리대학병원을 거쳐 멤피스에서 소아과 의사로 활동한 뒤 은퇴했다.



김영자 동창 (약학·57년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사는 김영자 동창은 지난해 11월, 이화국제재단에 미화 30만달러의 장학금 약정서를 전달했다. 2004년에 이미 김영자장학금을 설립한 바 있는 그가 이번에 30만달러를 추가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동창회의 이사장이기도 한 김 동창은 현재 약사로 활동중이며 지회 동창회의 추천을 받아 2005년 11월부터 국제재단 이사로 봉사하고 있다.



패션디자인연구소 '이화 패션브랜드' 런칭 차별화된 감각과 실험정신으로 승부



패션디자인연구소(소장 김혜연 교수)가 조형적 고감성을 지향하는 '이화 패션브랜드'를 런칭하며 지난해 11월 11일(금) 이화아트센터에서 브랜드런칭쇼를 열었다. 가방, 구두 등 패션소품으로 출발하는 '이화 패션브랜드'는 향후 차별화된 감각과 실험정

신으로 모든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패션디자인연구소는 현재 교내에 '이화 패션브랜드' 상품을 진열한 쇼룸을 운영하면서 국내 브랜드의 디자인 프로모션, 유통업체의 판매 아이템 개발 등 다각적인 사업을 기획 중이다.

국제전문가의 경력 지원할 국제경력개발센터 열어

국제대학원 국제경력개발센터(소장 윤여진 교수)가 지난해 11월 23일(오후 4시) 국제교육관(1002호)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국제학특성화사업의 하나로 설립된 국제경력개발센터는 국제학부 및 국제대학원 학생들이 국제인턴십, 국제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경력지도 및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Global

Community Service and Professional Career'를 주제로 한 워크숍도 함께 열렸다.

제1기 여성금융관리자과정 수료식

경영대학원(원장 서윤석 교수)이 지난해 12월 15일(오후 7시) 이화·신세계관에서 제1기 여성금융관리자과정(9월 19일~12월 15일, 12주 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서윤석 경영대학장을 비롯, 정운찬 서울대학교 총장,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 강정원 국민은행 은행장 등 한국 금융계의 최고권위자들이 강사로 참여한 큰 관심을 모았던 이번 과정에서는 금융관련 기관 및 정부 부처 직원 29명, 본교 학부 및 대학원생 5명 등 총 34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Ewha Old and New : 110 Years of History 1886-1996

이화역사관 엮음

본교 창립 120주년이 되는 2006년도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화의 역사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한 영문 이화 역사집이다. 이화의 역사는 이화만의 역사가 아니라 한국 근대사, 한국 여성사, 한국 근대 교육사의 역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크다. 이번 영문 110년사에 이어 국문 '이화 110년사'도 곧 출간될 예정이다. <1만4천원>

서숙 교수의 영미소설 특강 1: 주홍글자

서숙 지음

본교 영문학부에서 20여 년 넘게 영미소설을 강의해온 서숙 교수가 자신의 강의록을 책으로 펴냈다. 강의록이라고는 하지만 딱딱하거나 어렵지 않고 소설의 차례를 따라가면서 쉽고 재미있게 기술하고 있다. 특히 영어체를 사용하면서 학생들의 답변도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서 마치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 같은 친근한 느낌을 준다. <서숙 교수의 영미소설 특강> 시리즈에는 '위대한 개츠비' '허클베리 핀의 모험' '여인의 초상' '솔라' 등이 발간 예정되어 있다. <8천원>

효과적인 영유아 교육과 보육, 어떻게 할 것인가

(개정판)

데리 코랄레크 외 지음 / 이기숙 · 심성경 옮김

이 책은 영아기, 걸음마기, 학령 전기, 학령기, 그리고 혼합 연령의 유아들이 있는 가정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어려운 점들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탁월한 현장 지침서이다. 매일매일 영유아들과 생활해 나가면서 부딪치게 되는 세세한 일들에 대해서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며,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아동발달 이론에 기초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1만1천원>

연애의 기술 : 사랑의 글모음 시리즈 (일본편)

정순희 엮음

'사랑의 글모음' 시리즈 일곱 번째 책이자 완결편으로, 일본의 유명 작가들이 그들의 연인과 주고받은 사랑의 편지들을 모았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나쓰메 소세키, 기타무라 도코쿠, 시마무라 호게쓰, 기타하라 하쿠슈, 다니자키 준이치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다자이 오사무 등 총 10명의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남긴 연애 편지의 질적 양적 수준을 중심으로 선별된 것이지만 일본 근현대 문학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 인물들이다. <8천5백원>

Introduction to Academic English Writing

Branden Howe and H. A. Willoughby 지음

'유장희 국제학 시리즈'의 세 번째 책으로 학술 영작문에 효과적인 지침서이다. 다년간 대학에서 사회과학과 인문학 분야의 수업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외국인 학자들이 집필했다. 이 책은 학생들에게 문장, 문단, 에세이 그리고 많은 분량의 연구 논문을 작성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규칙을 가르쳐 주는 동시에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주의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주는 실용적인 자습서이다. <9천원>

Crisis and Change : South Korea in a Post-1997 New Era

Jasper kim 지음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의 한국 사회 전반의 변화를 외부자의 시선으로 진단하고 있는 책이다. 본교 국제대학원 교수인 제스퍼 김 교수가 그동안 한국 관련 일을 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저자는 학제간 비교 연구를 통해 1997년 이후 한국 사회의 주요 부문—경제, 법, 정치, 외교, 사회, 인프라, 교육—에 걸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을 개괄하면서 테크놀로지가 그러한 변화들을 실행시킨 중요한 도구였다고 지적한다. <1만3천원>

비트겐슈타인과 현대 철학의 언어적 전회

남경희 지음

이 책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적 전회를 전 후기의 두 단계로 구분하면서, 두 전회의 내용과 성격을 검토한다. 두 단계의 전회 중 훨씬 포괄적이고 근원적인 것은 그의 후기 철학이 시도하는 전회이다. 이 두 번째의 전회는 플라톤 이래 서구 전통 존재론의 기본적인 사유틀로 전제되어 온 구분들과 범주들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비트겐슈타인의 탐사적인 질문들은 사태의 본질로 파고들며 우리의 사고를 촉발한다. <1만3천원>

통치 이념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가

이영애 외 지음

본교 사회과학연구소가 기획하는 '사회과학총서' 1권으로 행정, 경제, 사회복지, 심리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한국 국가원수의 통치 이념이 어떤 방식으로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지를 분석한 책이다. 저자들은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수상간의 개인적 특성, 통치 이념 간의 비교, 그 시기 한국의 정책들이 영국의 정책을 어떤 식으로 유추 학습하였는지를 통하여 한 통치자의 개인적 특성이 유사한 정책들의 시행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비교하고 있다. <1만3천원>

한국의 전통 사회 화폐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13

원유한 지음

이 책에서는 한국 화폐사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 화폐사의 발전 단계를 각각 화폐 유통 배경, 유통 정책과 영향 및 그 역사적 의의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독자들은 역사 발전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화폐 경제 발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전통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동시에 세계사 속에서의 한국 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포괄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게 될 것이다. <1만2천원>

출판부 소식

이대출판부는 2006년 새해를 맞이하여 2005년 12월 19일부터 한 달간 이대출판부 인터넷서점(www.ewhapress.com)에서 도서 2권 이상을 구매하신 고객에게 <2006 이화 탁상용 달력> 1부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의과대학, 서울시 지원사업에 3개 과제 선정 | 하은희 최병옥 김영주 교수 연구팀

2005년 서울시 지원사업에 의과대학이 신청한 3개 과제가 모두 선정되었다.

지난해 10월 20일 '서울형 미래도시산업 육성지원사업'의 '의료

시스템 및 네트워크' 분야에 하은희 교수팀의 프로젝트가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된데 이어 12월 1일에 발표된 서울시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의 최종 사업자에는 최병옥 교수팀과 김영주 교수팀이 선정되어 각각 1억9000만원과 2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2006년부터 1년에 2억씩 총 10억원의 지원금을 받는 하은희 교수팀의 과제는 '저출산율 시대에 대응하는 출생코호트 네트워크를 이용한 서울시 모자보건사업'으로 본교 의과대학을 비롯, 생활환경대학, 공



과대학에서 30여명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로 진행된다.

최병옥 교수팀의 과제는 '뇌졸중의 조기진단 및 예방을 위한 나노바이오칩의 개발'. 뇌졸

중 위험인자 조절에 의한 예방을 위해 유전자와 단백질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뇌졸중 진단 시스템을 개발, 신속 정확한 진단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나아가 소규모병원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실시간 판별까지 할 수 있는 나노 바이오칩을 개발할 예정이다.

김영주 교수팀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모체혈액을 이용한 태아 유전질환 검사법 개발'로 유전질환 진단시 융모막 검사나 양수검사 등의 침습적인 방법이 아닌 임신부의 혈액채취를 통한 비침습적이고 안전한 방법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동병원 소식

몽골소녀를 위한 '사랑의 인술' 펼쳐



유난히 차가웠던 올겨울 한파를 녹인 사랑의 인술이 펼쳐졌다. 지난해 12월 6일 앞을 못 보는 11살의 몽골소녀 오랑치맥이 본교 의료진의 무료 각막이식 수술을 통해 시력을 되찾게 된 것이다. 이번 수술은 안과 최규룡 교수가 지난해 5월 몽골 바가노르에서 의료봉사활동 중 오랑치맥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후, 한국의 여러 지인들의 힘을 모아 추진해 왔다.

당시 오랑치맥은 좌안 각막혼탁과 외상성 백내장으로 한쪽 눈을 완전히 잃고, 나머지 눈마저 시력이 약해져 있던 상태였다. 무사히 수술을 마친 오랑치맥은 이식한 각막이 안정화되기를 기다리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목동병원 가정의학과, 새 모습으로 단장 | 외국인 위한 국제진료소도 신설



목동병원 가정의학과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했다. 지난해 11월 24일(오후 4시 30분) 외래확장이전 및 국제진료소를 신설하고 진료를 시작함으로써 환자의 건강을 일차적으로 점검하는 가정의학과와 역량을 한 단계 높였다.

목동병원 2층에 새로 마련된 가정의학과 외래는 밝은 색조의 편안한 느낌을 강조한 현대식 인테리어로 환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국내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과 VIP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제진료소도 같은 날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윤건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서현숙 목동병원장 등이 참석, 가정의학과와 발전을 축하했다.

동대문병원 소식



가슴앓이 찾병 클리닉 개설

지난해 11월 23일 가슴앓이 찾병 클리닉을 개설해 진료에 들어갔다. 한 번의 예약 진료로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정신과 전문의의 전문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갖춰 환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했다. 클리닉측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가슴앓이 즉 찾병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이상으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 및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사선과, 서울시협회 모범병원 선정

방사선과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시 방사선협회 정기총회(마포구 합정동 메리퀸홀)에서 모범병원으로 선정되었다. 꾸준한 논문발표와 의료기술 향상에 남다른 관심으로 협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방사선과는 기술연구와 학문탐구 및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의료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의료원, '뇌졸중 환자의 날' 건강강좌 개최 뇌졸중 집중치료실 오픈 기념 심포지엄도

이화의료원(의무총장 겸 의료원장 윤건일)은 지난해 11월 18일(오후 2시) 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뇌졸중 환자의 날'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 환자,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및 콜레스테롤을 측정해주는 무료검진과 뇌졸중의 재활치료(재활의학과 이상지 교수), 뇌졸중과 치매의 연관성(신경과 정지향 교수), 뇌졸중 자가진단(신경과 김용재 교수) 등 다양한 강좌들로 알차게 꾸며졌다.





이화인의 모교 사랑이 꽃피는 자리, '2005 이화인의 밤' 행사가 지난해 11월 28일, 1400여명의 이화인이 참석한 가운데 남산 힐튼 호텔에서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되돌아보고 섬김과 나눔의 이화 정신을 되살리자는 취지로 총동창회가 제정한 '아름다운 이화인상'의 첫 번째 시상식이 함께 마련되어 더욱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제1회 '아름다운 이화인상'은 44년간 부산에서 매실보육원을 운영하며 800여명의 소외된 어린이들을 어엿한 사회인으로 키워온 박진숙 동문(교육심리·58년졸·사진)에게 돌아갔다.

"어머님이 만들어 놓으신 보육원을 물려받아 그저 묵묵히 일해 왔을 뿐 내용을 것이 별로 없다"고 소박한 수상 소감을 밝힌 박 동문에게는 기념패와 상금이 주어졌다. 시상식 직후 김동근 교수(교목실)가 축사에서 격려금 200만원을 전달하고, 손성혜(중등교육·63년졸) 동문이 무료 한복 제공을 약속하는 등 그를 향한 따뜻한 응원의 손길도 이어졌다.

이날 윤순희 동창회장은 '이화인의 밤' 수익금과 ESCC 건립후원금 1억원 기증서를 신인령 총장에게 전달했다. 신 총장은 "모교가 2004년 대학종합평가에서 1위를 한데 이어 최근 발표된 2005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다"면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입학 정원 감축, 행정 단위 축소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모교의 자랑스런 소식을 전했다.

오영주 동문, 첫 여성 유엔과장에 발탁

다자외교 무대의 새 주역으로



외교통상부 외무관으로 근무중인 오영주 동문(정외·86졸)이 1월 2일, 외교부 국제연합(유엔) 과장으로 발탁됐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도 거쳐간 바 있는 유엔과장직은 외교부 과장직 중 다자 외교분야 최고 요직으로, 미국 담당인 북미과장, 일본 담당인 동북아 1과장과 더불어 과장직 박3로 꼽히고 있다. 오 동문은 1998~2000년 유엔 대표부 1등 서기관을 지낸데 이어 2002년부터 유엔과 차석업무로 해 온 유엔통으로서 이번에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

88년, 본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외무고시에 합격한 그는 "진입 장벽이 두터운 양자외교 무대 보다는 유엔 등을 통한 다자외교 무대에서 여성이 두각을 나타낼 기회가 많다"면서 후배 여성외교관들이 앞으로 양자 외교무대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해 주기를 희망했다.



동문 동정



유한선 동문(정외·04년 명예졸업)

지난해 11월 22일, 본교 장학후원이사회 신규 이사로 위촉되었다. 유 동문은 정외과를 다니다 결혼으로 학교를 중퇴한 후 2004년 가을, 이화 역사상 처음으로 제정된 명예졸업장을 받은 바 있으며, 같은 해 장학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오은경 동문(경영·83년 졸)

지난해 11월 29일, 경영학과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경영인 상'을 수상했다. 현재 모건 스탠리 증권 상무이사인 오 동문은 금융 분야에서의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정미경 동문(영문·82년 졸)

중편소설 '밤이여 나뉘어라'로 제30회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2001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했으며 장편 '장밋빛 인생'으로 2002년 '오늘의 작가상'을 받은 바 있다.

김정수 동문(무용·70년 졸)

지난해 12월 5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 발레 협회의 '2005 한국 발레 협회 수상 및 송년의 밤' 행사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02년에도 본 협회에서 무용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해련 동문(경영·84년 졸)

지난해 11월 28일, 히트 상품 120개를 분석한 트렌드 관련 서적 '히트 트렌드 전략'을 펴냈다. 트렌드 컨설팅 회사인 인터패션플래닝과, 인터넷 쇼핑몰 패션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순덕 동문(독문·88년 졸)

지난해 12월 15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언론인회가 주관하는 제14회 대한언론상을 수상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서 날카로운 현실 감각이 돋보이는 컬럼을 선보이고 있다.



이화전문직클럽 초청 간담회 열려

대외협력처(처장 황혜진 교수)는 지난해 11월 7일(오후 6시 30분) 이화·삼성 교육문화관 8층 대회의실에서 이화전문직클럽 초청 모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문직클럽 회장단에게는 사회 각 전문영역에서 이화의 명예를 빛내준 것을 치하하는 감사장이 전달됐다.

장학금 기탁 소식



(왼쪽부터)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이춘란 명예교수, 김혜옥 이사장, 문재숙 교수.

이춘란 명예교수

사학과에 장학금 5000만원 기탁

지난해 11월 30일, 사학과 이춘란 명예교수(영문 49년졸)가 서양사 전공생들을 위해 장학금 5000만원을 쾌척했다. 이 교수는 1949년 영문과 1회 졸업생으로 미국 유학 당시 사학을 전공, 1955년 본교 사학과 설립 때부터 학생들을 지도해 온 이화의 대표 원로 교수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학문의 선호도가 바뀌어 왔지만 역사는 모든 학문의 기초라 생각한다는 이 교수는 사학도들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사학과나 이화사학연구소에 늘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최소자 선생님이 먼저 좋은 일 하시는 것을 보고 더 머무지 말아야겠다 싶었지요.”

어렵던 시절, 학교의 도움으로 유학을 갔던 이 교수는 학생들이 장기적인 안목과 목표를 가지고 학업에 정진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춘란장학금으로 명명된 본 기금은 서양사 전공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2007학년도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본교 사학전공생들은 이번 장학금과 더불어 한국사 전공생을 위한 이배웅장학금, 동양사 전공생을 위한 최소자장학금 등 본교출신 교수들의 애정어린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김혜옥 성애의료재단 이사장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 장학금 5000만원 기탁

2003년 9월 금혼학칙 폐지로 재입학한 김혜옥(사회복지 4년재학) 성애의료재단 이사장이 신설된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을 위해 5000만원을 기탁했다.

김 이사장은 1954년 본교 사범대 생물과에 입학했다가 결혼으로 학업을 중단한 후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재입학시에는 생명과학 전공이었으나, 2004년 사회복지학으로 전과한 김 이사장은 현재 윤혜복지재단을 운영할 정도로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올해 첫 발을 내딛는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개설 소식을 듣고 장학금 기부를 결심했다고 한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자신보다 다른 젊은 학생들을 공부시켜야 하지 않을까 늘 생각해 왔다는 김 이사

장은 이번 장학금 기탁에 대해 “그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문재숙 교수

송향장학금 5000만원 기탁, 총 1억원 조성

한국음악과 문재숙 교수가 음반 ‘청초’ 및 도서 ‘이완규 김죽파 소장악보 총서-고전회금보’ 출판 기념 음악회(2005년 12월 8일,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를 열고 기부금 5000만원을 모아 기탁했다. 이번 음악회는 장학금 모금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것으로 참석자들은 입장료 대신 장학금을 기부해 문 교수와 뜻을 함께 했다.

문 교수는 학과장을 맡게 되면서 이화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고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 음악회를 기획했다며 “제자들이 이 장학금을 통해 더 나은 형편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금된 장학금은 문 교수가 형편이 어려운 한국음악과 학생들을 위해 이미 기탁한 송향장학금 5000만원과 합하여 총 1억원의 기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송향장학금은 2005학년도 2학기에 3명의 학생이 받은 바 있다.

윤순희 총동창회장

장학금 5000만원 기탁



윤순희 총동창회장(송 의학원 이사장·교육·65년졸)이 올초 5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 2006년의 첫 번째 장학금을 기록했다. 윤 총동창회장은 그간 장학후원이사회에 참석하면서 총동창회

장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장학금을 기부해야겠다고 결심한 후, 새해가 되면서 이를 바로 실행에 옮겼다고. “동창으로서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은 학생이나 교수님들 못지않지요.” 그는 앞으로 학교가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말로 장학금 기탁의 소감을 대신했다. 윤순희장학금은 앞으로 사범대학 학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화 인닷넷 아름다운 기부 E-pro(2%) 장학금 모금 소식

황영미씨 장학금 100만원 기탁

지난 봄 이화인닷넷의 E-pro 장학금 기부에 동참했던 황영미(도자예술·3년)씨가 1여년 만에 장학금 100만원을 다시 기부했다. 지난해 12월 대외협력처를 찾은 황 씨는 연말에 E-pro기부금 영수증과 달력을 받고서 또 한번의 장학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 2003년 2학기부터 금혼학칙 재입학생으로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황 씨는 “새로 공부하는 동안 함께 지내는 후배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화인닷넷 아름다운 기부

E-pro(2%) 장학금 기부자 명단

남보영(국어국문 94년졸) 1만원, 양숙희(중어중문 02년졸) 1000원, 현정애(영어영문 95년졸) 1만원, 조보영(영어영문 04년졸) 5000원, 신경희(사학 89년졸) 1만원, 이수연(사회복지 85년졸) 60만원, 김준영(사회복지 99년졸) 1만원, 김윤아(심리 00년졸) 1만원, 장서희(심리 01년졸) 1000원, 김명진(경제 03년졸) 1만원, 조연희(통계 00년졸) 1만원, 안영신(물리 00년졸) 1만원, 우선옥(생물 92년졸) 1만원, 홍상희(전자공학 00년졸) 1만원, 박상경(교육 02년졸) 1만원, 정혜령(초등교육 96년졸) 1만원, 민진영(수학교육 01년졸) 5000원, 민지현(의학 02년졸) 5000원, 임재영(가정 92년졸) 1만원, 이진희(의학과, 의학 95년졸) 1만원, 최연숙(학적과, 영어영문 93년졸) 2만원, 박지영(대외협력과, 중어중문 98년졸) 4만원, 변화정 2만5000원, 손희호 5000원, 이진영 1000원

그 밖의 장학금 소식

교육학과 안인희 명예교수가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 총 2000만원의 안인희장학금을 운영하게 되었다. 경영학전공 하영구, 전광우 겸임교수도 각각 75만원, 30만원의 특강비를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한국음악전공 강건소 강사는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에도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해외에서도 이화 사랑이 이어졌다. 매년 장학금을 보내고 있는 뉴욕동창회가 1만 달러를, 이화 국제재단이 Mayday Fund 장학금 6370달러를 기탁한 것. 그리고 박혜정(정치외교 77년졸), 연정희(정치외교 86년졸), 김지영(특수교육 03년졸) 동문이 각각 100만원을 약정했다. 경원문화재단과 (주)신홍도 각각 200만원과 400만원을 약정했다.



2005 장학후원이사회 열려

2005 장학후원이사회(회장 정익숙 명예이사장)가 지난해 11월 22일 이화학당 행정동에서 44명의 후원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사진). 장학현황과 장학금 지급방법 등에 대한 현안을 다루는 본 회의에서는 장학기금 보고 및 28명의 신규 이사가 위촉되었다.

이날 언론홍보영상학부 동창회(회장 성인숙)가 후배들을 위해 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고, 저금리로 인한 원금손실을 우려해 새 동창회장단이 임기마다 10%의 금액을 추가 적립하는 사례가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장학생 대표로 백정화(법학 4학년)씨가 장학증서를 수여받았다.

교내 각 기관 발전기금 기탁 현황 (약정기간 : 2005.11.1~2005.12.22)

신공학관건축기금 모금

공대교수 일동이 신공학관건축기금으로 다음과 같이 약정했다.

강미선 400만원, 강호정 300만원, 김광수 300만원, 김낙명 300만원, 김영 300만원, 김명희 1000만원, 김영준 300만원, 김용표 540만원, 김정태 330만원, 김정호 300만원, 박승수 1000만원, 박현석 300만원, 반호경 300만원, 송승영 240만원, 신영수 1000만원, 신형순 300만원, 용환승 360만원, 윤재신 300만원, 이미정 300만원, 이민수 300만원, 이병욱 300만원, 이상호 1000만원, 이준성 500만원, 임혜숙 300만원, 조경숙 300만원, 자유규 330만원, 채기준 500만원, 최병주 300만원

사대교육관건축기금 모금

교육 교육학과 7기(56년졸) 500만원, 백인숙(50년졸) 1000만원, 김현자(57년졸) 500만원, 이재숙(82년졸) 300만원 **교육공학** 교육공학과 27기(68년졸) 200만원, 교육공학과 12기(78년졸) 150만원, 김복희(70년졸) 20만원, 김상희(70년졸) 200만원, 김여희(70년졸) 50만원, 김영옥(70년졸) 200만원, 김유혜(70년졸) 50만원, 김혜원(70년졸) 20만원, 박선리(70년졸) 50만원, 박숙희(70년졸) 50만원, 이성례(70년졸) 100만원, 이혜숙(70년졸) 20만원, 전동옥(70년졸) 50만원, 조영호(70년졸) 300만원, 조옥연(70년졸) 300만원, 한인숙(70년졸) 20만원, 홍명희(70년졸) 20만원, 한정선(교육공학과, 69년졸) 300만원 **특수교육** 원종례(77년졸) 100만원, 유애란(82년졸) 100만원, 최만숙(82년졸) 100만원, 최주희(82년졸) 100만원, 박현옥(85년졸) 100만원, 김현진(86년졸) 100만원, 박미경(87년졸) 100만원, 송재남(89년졸) 300만원, 강경숙(91년졸) 100만원, 전혜인(91년졸) 100만원, 이명희(06년졸) 500만원 **영어교육** 김영실(75년졸) 100만원, 송영현(75년졸) 100만원, 심재영(75년졸) 100만원, 안승신(75년졸) 100만원, 이소현(75년졸) 200만원 **과학교육** 유계화(과학교육과) 200만원 **수학교육** 조진숙(79년졸) 300만원 **교대원** 김양근(체육교육 84년졸) 20만원 **기타** 김정휘 50만원

외과대학기숙사건축기금 모금

김명현(의학과) 450만원

의학관B동기초실기금 및 의료원선교후원기금 모금

홍정자(Joyce Jung Ja Hong)(66년졸) \$300, 권영혜(Young Hae Kwon)(67년졸) \$500, 김명미(Myung Mi Ryu)(67년졸) \$500, 장현자(Hyun J. Choi)(67년졸) \$1,000, 정명희(Myeong Hi Choi)(69년졸) \$1,000, 조호경(Sharon H. Choi)(69년졸) \$1,000, 최인규(Ingyu Kim)(71년졸) \$1,000, 강정애(Jeannie K. Choi)(73년졸) \$300, 김정희(Jung Hi Kim)(73년졸) \$500, 안정옥(Jeong Ok Lee)(73년졸) \$1,000, 고순정(Sandy S. Koh)(77년졸) \$1,000, 하은희(의학과, 87년졸) 1000만원

의학전문대학원발전기금 모금

의학과 24회동기(75년졸) 1000만원, 김명현(의학과) 50만원

임상치의학대학원발전기금 모금

강영주 450만원, 강은영 450만원, 김연옥 450만원, 김유라 450만원, 김은경 450만원, 박승희 100만원, 심정신 450만원, 윤원자 450만원, 임정미 450만원, e-하만치과 100만원

의료원발전기금 모금

동대문병원직원일동 1억7854만2660원, 목동병원직원일동 4억2553만5340원

21세기발전기금 모금

미국 뉴욕의 이화 국제재단에서 도서관 도서구입기금(Dorothy Smith Estate for Library)으로 \$16,925.82을, 본관 운용기금(Pfeiffer Fund)으로 \$30,000.00을 보내왔다.

21세기발전기금으로 김정순 동문(법학 55년 졸)이 1억원을 기탁했고, 미국에서 이도영(Do Young Lee) 동문이 \$350을 보내왔다. 또 민선식 YBM/Si-sa 대표이사장이 국제대학원 특강비 28만6800원을 기탁했다.



러시아 국립 발레단 공연과 이문세 독창회

대외협력처(처장 황혜진 교수)는 연말을 맞아 볼거리 가득한 공연들을 마련, 이화 가족을 비롯한 예술 애호인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다. 지난해 12월 3~7일 본교 대강당에서 열린 러시아 국립 발레단(Russian National Ballet Theater) 공연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호두까기 인형'은 정통적인 러시아 발레의 진수를 선보여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이번 공연에는 사회복지관 어린이 40여명을 무료로 초청하는 뜻 깊은 이벤트도 열렸다.

한편 크리스마스를 맞아 대강당에서 펼쳐진 가수 '이문세 독창회'(2005년 12월 22~25일)는 성탄절 분위기를 한껏 연출한 무대장치에 감미로운 캐롤 등으로 인기를 모았다. 이번 공연은 1000회에 육박하는 이문세 콘서트의 정수로 볼릴 만큼 다양한 연출이 돋보였다. 이 공연으로 이화의 겨울 교정이 열기로 가득 찼다는 후문.

이번 공연들을 진행했던 공연기획사 (주)엔터진(대표 박영미)과 (주)좋은콘서트(대표 최성욱)는 수익금과 기부금으로 각각 총 5000만원을 조성, 본교의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이화·삼성 캠퍼스센터(ESCC)건립기금 모금 소식

이화 ALPS 총동창회 ESCC 건립기금 및 장학금 기탁

이화 여성최고지도자과정(ALPS) 동문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잇달아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화 여성최고지도자과정(ALPS) 총동창회(회장 박정옥)가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주최한 송년모임 겸 신입회원 입학식에서 ESCC 기금 및 장학금 각각 5000만원을 본교에 전달했다. 또한 박정옥 ALPS 총동창회 회장(ALPS 13기)은 개인적으로 ESCC 기금 5000만원을 쾌척했다. 박 회장은 학교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해 했다. 이날 행사에서 2005년 2학기를 수료한 ALPS 22기(회장 김정자) 일동이 ESCC 기금과 탁아소(이화어린이집) 기금으로 각각 50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ALPS 22기 ESCC 기금 기탁자 명단

송백희 204만원, 송인현 699만원, 유태목 204만원, 이명희 340만원, 이수덕 204만원, 이수영 699만원, 이옥자 272만원, 이지나 204만원, 장남순 340만원, 장미희 272만원, 장윤희 66만원, 조성숙 204만원, 조중순 340만원, 조효연 340만원, 최후자 204만원, 한승미 204만원, 허수자 204만원

ALPS 22기 탁아소(이화어린이집) 기금 기탁자 명단

김소연 340만원, 김윤경 204만원, 김윤옥 204만원, 김은주 476만원, 김정숙 340만원, 김정자 767만원, 김정현 340만원, 김종남 699만원, 김진숙 204만원, 김효순 204만원, 박영숙 272만원, 박오녀 204만원, 박주미 204만원, 백덕희 204만원, 백보현 204만원, 손인준 100만원, 장윤희 34만원

〈이화·삼성캠퍼스센터(ESCC) 건립기금 약정자 명단〉 (약정기간 : 2005.11.1~2005.12.22)

국어국문 박영자(63년출) 30만원, 양희재(63년출) 30만원, 유은숙(63년출) 10만원, 이소옥(63년출) 10만원, 이효자(63년출) 10만원, 이우경(71년출) 200만원, 이수자(73년출) 300만원, 김옥선(74년출) 100만원, 정호근(75년출) 1000만원, 윤숙자(63년출) 10만원 **영어영문** 최은경(60년출) 10만원, 황미리(60년출) 10만원, 이정자(61년출) 10만원, 구훈모(62년출) 10만원, 권경자(62년출) 10만원, 김영희(62년출) 10만원, 김윤영(62년출) 10만원, 백상숙(62년출) 10만원, 서수자(62년출) 10만원, 송영애(62년출) 10만원, 오하숙(62년출) 10만원, 윤정자(62년출) 10만원, 이덕자(62년출) 10만원, 이옥선(62년출) 10만원, 이의경(62년출) 10만원, 이행자(62년출) 100만원, 이혜숙(62년출) 10만원, 임귀미자(62년출) 10만원, 정기희(62년출) 100만원, 정나(62년출) 10만원, 조규춘(62년출) 10만원, 조신자(62년출) 10만원, 주양희(62년출) 10만원, 유미희(Mihwa Yoo Hong)(66년출) \$3,000, 김경숙(72년출) 50만원, 공진선(73년출) 50만원, 김원옥(73년출) 50만원, 김유미(73년출) 50만원, 박영옥(73년출) 50만원, 이장순(73년출) 30만원, 이정애(73년출) 50만원, 태영남(73년출) 50만원 **독어독문** 민용재(67년출) 300만원, 최옥주(67년출) 100만원, 남재은(68년출) 350만원, 김정옥(69년출) 100만원, 정진원(69년출) 100만원, 권영희(70년출) 350만원, 조행자(72년출) 350만원, 유동진(74년출) 300만원 **기독교** 김정옥(75년출) 300만원 **사학** 사학과 37(61년출) 200만원, 사학과 147(72년출) 200만원, 사학과 177(75년출) 150만원, 강영실(73년출) 10만원, 구희옥(73년출) 15만원, 김경희(73년출) 15만원, 김진자(73년출) 10만원, 김영옥(73년출) 10만원, 김영주(73년출) 10만원, 김은영(73년출) 10만원, 백금현(73년출) 15만원, 소성옥(73년출) 15만원, 심상희(73년출) 10만원, 이숙영(73년출) 15만원, 이현자(73년출) 10만원, 이형복(73년출) 10만원, 장영(73년출) 10만원, 장영희(73년출) 10만원, 지옥현(73년출) 10만원, 진순화(73년출) 10만원, 하경애(73년출) 15만원, 한상혜(73년출) 15만원, 허재선(73년출) 10만원, 김대숙(75년출) 20만원, 유종희(75년출) 20만원, 이송희(75년출) 20만원, 장경원(75년출) 20만원, 정미령(75년출) 20만원, 강병희(80년출) 10만원, 권순희(80년출) 10만원, 김영애(80년출) 10만원, 김정미(80년출) 10만원, 김경숙(80년출) 10만원, 김경희(80년출) 10만원, 박수경(80년출) 10만원, 박지훈(80년출) 20만원, 신혜수(80년출) 10만원, 오성옥(80년출) 10만원, 온영주(80년출) 10만원, 원혜경(80년출) 10만원, 육정임(80년출) 10만원, 윤미루(80년출) 10만원, 윤혜선(80년출) 10만원, 이금희(80년출) 10만원, 이명화(80년출) 20만원, 전영희(80년출) 10만원, 정경숙(80년출) 10만원, 정향자(80년출) 10만원, 조영분(80년출) 10만원, 조진숙(80년출) 20만원, 강은정(90년출) 30만원, 고해숙(90년출) 5만원, 김미경(90년출) 5만원, 김은실(90년출) 3만원, 남경희(90년출) 5만원, 박민선(90년출) 10만원, 백화영(90년출) 3만원, 안유림(90년출) 10만원, 은자원(90년출) 33만원, 이경현(90년출) 10만원, 이수연(90년출) 3만원, 이수연(90년출) 5만원, 이애령(90년출) 5만원, 이혜영(90년출) 10만

원, 최남옥(90년출) 3만원, 황지현(90년출) 10만원, 송정숙(92년출) 10만원, 정유경(92년출) 200만원, 하지연(92년출) 40만원 **장외교** 관계홍(69년출) 10만원, 김형주(69년출) 10만원, 문정숙(69년출) 10만원, 안홍자(69년출) 10만원, 우정순(69년출) 20만원, 우행자(69년출) 10만원, 원금선(69년출) 10만원, 이규자(69년출) 10만원, 이미자(69년출) 10만원, 이옥자(69년출) 10만원, 이채영(69년출) 10만원, 이정원(69년출) 10만원, 이춘자(69년출) 10만원, 이춘희(69년출) 10만원, 이혜숙(69년출) 10만원, 임영희(69년출) 10만원, 장순임(69년출) 10만원, 천영자(69년출) 10만원 **행정** 박민숙(82년출) 100만원, 권운경(83년출) 25만원, 김이경(85년출) 100만원, 김경애(86년출) 50만원, 김혜경(86년출) 100만원, 안지민(86년출) 200만원, 유애현(86년출) 100만원, 이진숙(86년출) 200만원, 이현주(86년출) 100만원, 조은경(86년출) 100만원, 조은경(86년출) 50만원, 최미경(86년출) 100만원, 김광희(87년출) 100만원, 김진선(87년출) 25만원, 김윤희(87년출) 25만원, 박상금(87년출) 100만원, 양희선(87년출) 100만원, 최진미(87년출) 100만원, 김윤희(88년출) 25만원 **문헌정보** 문헌정보학과 147(76년출) 200만원, 방옥자(71년출) 100만원, 권은경(76년출) 200만원, 김영미(81년출) 20만원, 김은미(81년출) 20만원, 송순희(81년출) 20만원, 윤화진(81년출) 20만원, 이수자(81년출) 20만원, 정영옥(81년출) 20만원 **신문방송** 신문방송학과 87(71년출) 125만원, 양길자(65년출) 50만원, 정정자(65년출) 300만원, 함정원(65년출) 20만원, 김영심(Young Shim Kim Yun)(66년출) \$600, 윤수경(69년출) 100만원, 상민숙(70년출) 200만원, 송병순(71년출) 25만원, 이윤형(71년출) 50만원, 임영숙(71년출) 150만원, 박옥희(73년출) 50만원, 안계상(74년출) 50만원, 최수경(74년출) 20만원, 황희경(74년출) 50만원, 신연숙(76년출) 140만원, 김학희(77년출) 20만원, 김경운(78년출) 30만원, 김혜경(78년출) 20만원, 남성희(78년출) 100만원, 박초아(78년출) 30만원, 백낙서(78년출) 25만원, 윤인숙(78년출) 20만원, 이명란(78년출) 100만원, 이명혜(78년출) 25만원, 이종화(78년출) 25만원, 장은희(78년출) 30만원, 조영숙(78년출) 20만원, 최지은(78년출) 20만원, 한성원(78년출) 25만원, 함승희(78년출) 30만원, 신숙희(79년출) 40만원, 김근진(80년출) 100만원, 김정은(80년출) 30만원, 오소미(80년출) 30만원, 정현자(80년출) 100만원, 홍인희(80년출) 240만원, 이은미(81년출) 30만원, 이선희(85년출) 30만원, 임연옥(85년출) 50만원, 조순미(85년출) 100만원, 김정민(91년출) 30만원, 윤혜경(92년출) 50만원 **사회** 전명숙(63년출) 100만원, 임선자(Suncha Lim)(72년출) \$1,000, 정순경(73년출) 100만원, 현정은(76년출) 500만원, 김혜경(79년출) 50만원, 이현순(81년출) 50만원 **교육심리** 박순자(Soonja Park Kim)(63년출) \$500 **수학** 계영희(76년출) 100만원, 고명옥(76년출) 80만원, 박정초(76년출) 100만원, 이동화(76년출) 70만원, 이명옥(76년출) 70만원, 이은경(76년출) 70만원, 이은희(76년출) 70만원, 장승희(76년출) 70만원, 정영희(76년출) 70만원, 권영옥(82년출) 10만원, 김남연(82년출) 10만원, 김수정

(82년출) 10만원, 김진희(82년출) 10만원, 김현주(82년출) 10만원, 노상옥(82년출) 10만원, 노철준(82년출) 10만원, 민주영(82년출) 10만원, 박은미(82년출) 10만원, 박현숙(82년출) 10만원, 서명실(82년출) 10만원, 오성희(82년출) 10만원, 이미혜(82년출) 10만원, 이병희(82년출) 10만원, 이선아(82년출) 10만원, 이재향(82년출) 10만원, 이정희(82년출) 10만원, 정경희(82년출) 10만원, 정계선(82년출) 10만원, 조미화(82년출) 10만원, 조은옥(82년출) 10만원, 최영주(82년출) 70만원, 최정인(82년출) 10만원, 김진미(83년출) 100만원 **물리** 정경옥(63년출) 100만원 **화학** 최경자(73년출) 100만원 **생물** 생물학과 87(62년출) 500만원, 변희숙(73년출) 200만원 **체육** 박강실(78년출) 3000만원, 이정화(79년출) 100만원 **교육** 박혜숙(68년출) 1000만원 **유아교육** 김영주(71년출) 300만원 **영어교육** 이소현(75년출) 100만원 **사회생활** 김초영(Cho Young Kim Kugies)(69년출) \$1,000 **과학교육** 류수경(92년출) 1000만원 **수학교육** 송순희(58년출) 200만원 **법학** 조희경(75년출) 500만원, 문미란(80년출) 500만원 **경영** 강신호(76년출) 20만원, 김진옥(76년출) 30만원, 탁정자, 안미현(64년출) 500만원 **약학** 장혜원(Dr.Hai Won Chang)(50년출) \$1,000, 박옥희(Margaret Okhi Park Choun)(51년출) \$1,000, 김영자(Young Za Kim)(57년출) \$5,000, 강순화(67년출) 30만원, 박성자(67년출) 10만원, 오호순(67년출) 10만원, 이만자(67년출) 10만원, 정창희(67년출) 20만원 **동양학** 세인트루이스 동창회 \$2,500, 사회복지대학원동창회 100만원, 이화국제재단 \$10,737.50 **이명희** 이명희 63기 300만원, 이명희 72기 1000만원, 이은성(30기) 1000만원, 박희정(51기) 1000만원, 박정희(52기) 300만원, 이윤경(52기) 1000만원, 박은자(57기) 1000만원, 김영자(9기) 1000만원 **평생교육원** 홍은분 1000만원, 류지숙 1000만원, 박숙희 500만원, 송문자 1000만원, 박기원 2000만원, 김경희 1000만원, 김영희 1000만원, 윤명숙 1000만원, 이계자 1000만원, 김영선 1000만원, 고남근 1000만원, 문정숙 500만원, 정진선 1000만원, 김화숙 300만원, 조정례 1000만원, 노학자 1000만원, 장선에 1000만원 **교직원** 박정원(국어국문학전공) 300만원, 이준서(독어독문학과) 300만원, 최민자(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 71년출) 300만원, 손운산(기독교학전공) 500만원, 장윤재(기독교학전공) 300만원, 이경숙(기독교학전공, 영어영문 70년출) 500만원, 정희성(기독교학전공, 영어교육 85년출) 300만원, 백은미(기독교학전공, 기독교 89년출) 300만원, 강성원(이화역사관, 사학 73년출) 15만원, 원숙인(행정학전공, 행정 86년출) 1000만원, 김훈수(언론홍보영상학부, 신문방송 78년출) 100만원, 유세경(언론홍보영상학부, 신문방송 82년출) 100만원, 김선영(수학전공, 수학 82년출) 70만원, 이남숙(생명과학전공, 생물 77년출) 300만원, 최경희(과학교육과, 과학교육 85년출) 1000만원, 강해련(경영학전공, 경영 80년출) 300만원, 송유정(인사과, 초등교육 84년출) 200만원, 이난희(대외협력과, 불어불문 83년출) 300만원 **기타** (주)아르메 100만원, 조종혁 1억원, 지영일 310만원

(1)이화의 창립자 스크랜튼 당장(1832~1909)

한국 근대 여성교육의 등불을 밝히다

이배용(이화역사관장·사학과 교수)

“나는 수많은 가난한 집 아이들과 고아에 대해 들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생각하면서 여러 밤을 새웠다...”

메리 스크랜튼(Mary Fletcher Scranton)여사는 1832년 매사추세츠 주 벨치타운에서 감리교회 목사의 딸로 태어나 제조업자였던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고 40세에 미망인이 되었지만 열성적인 교회활동을 인정받아 뉴욕과 뉴잉글랜드지부에서 동시에 한국 근무 선교사로 추천을 받았다.

1885년 한국에 도착한 스크랜튼 부인은 이듬해(1886년) 5월, 이화학당을 설립하여 한국 최초로 여성교육의 문을 열었다. 그 해 11월에는 그동안 해외여성선교부 및 친지들로부터 지원받은 건축자금으로 한국근대여성교육의 요람인 건평 200평 규모의 이화학당 한옥교사를 신축하였다. 1887년 2월에는 고종(高宗)임금으로부터 이화학당(梨花學堂)이란 교명과 현판을 하사받게 된다. 이는 국가로부터 공인된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얻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의 사액서원(賜額書院)에 비견되는 일이었다.

그가 제시한 이화학당의 교육이념은 가부장적 굴레 속에 고통 받는 여성들을 기독교 진리를 통하여 해방시키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여 보다 나은 진정한 한국인으로堂堂하게 서기 위한 여성교육을 하는 것이었다.

또한 스크랜튼 부인은 학교 교육사업과 동시에 전통적인 내외법에 의해 남자 의사를 극도로 기피하여 병이 생겨도 치료받지 못하는 여성들만을 위한 전문 의료기관인 보구여관을 설립하여 여성 환자들의 따뜻한 안식처이자 여성 의학교육의 요람을 마련하였다.

한편 그는 1888년 이화학당 안에 주일학교를 시작하여 전도사업에도 힘을 썼는데, 1890년 당장직을 물러난 후에도 학당 일에 조력하는 한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서울 뿐 아니라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부녀자들에 대한 전도사업에 매진하여 이 땅의 여성들을 계몽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건강이 심하게 악화되어 외부 출입이 불가능한 형편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스크랜튼 부인은 1909년 7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부인의 장례식에는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수 천 명의 군중이 참석하여 상동교회에서부터 5마일이나 떨어진 양화진 묘지까지 따르면서 그녀를 추도하였다고 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인 사랑과 열정으로 한국 근대 여성 교육의 등불을 밝힌 노부인의 아름답고 훌륭한 생애에 대한 경의의 행렬이었다. 그의 저서로는 ‘그리스도성교문답’ ‘지구약론’ 등이 있다.



〈왼쪽〉 초기 이화학당 한옥교사.
1886년 11월에 건립하여 초기 학교교사로
사용하다가 학생수가 늘어나자 1897년
한옥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메인홀을 지었다.
이화 창립 120주년을 기념하여 2006년 5월,
신촌캠퍼스내 부지위에 복원될 예정이다.

〈오른쪽〉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있는
스크랜튼 여사의 묘. 묘석 위에 새겨있는
IHS는 라틴어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Iesus Hominum Salvator)라는 뜻이다.